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공동성명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되고,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교섭이 마무리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반대로 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등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현대차지부 노동자의 92%가 지부의 쟁의행위 결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단체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속속 조정신청을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를 포함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2023년 단체교섭에 ▲산업 전환기 고용안정 요구, ▲성과주의 임금정책 중단! 차별철폐! 공정분배 실현! ▲신규 채용 확대와 정년연장 등 3대 핵심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조속한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해 공동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거듭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산업전환기, 현대차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급격한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산업전환기에 현대차그룹이 산업 차원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포함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고, 자동차산업 전환기에 부품사에 유의미한 전환 정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재숙련, 숙련향상, 교차훈련 등 제도를 마련하여 완성차-부품사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한국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온 내연기관 부품사와 부품사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격려금 및 성과급 타결 없이 2023년 단체교섭 마무리 없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의 성과분배에 있어서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차별적 성과주의 임금정책을 적용하였다.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성과분배는 결국 그룹사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차 시대에 현대차그룹의 지속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계열사와 부품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아, 왜곡된 현대차그룹의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신규 채용과 정년연장을 통해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는 2023년 단체교섭을 통해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년 연장을 통한 숙련 노동자의 지속 고용을 요구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증산과 PBV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생산, 미래차 관련 부품·소재 생산에 필요한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인력 충원은 현대차그룹의 미래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 명의 자연 퇴직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원은 외주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산업 전환기, 숙련 노동의 활용을 통한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은 기업에도, 우리 사회에도 결과적으로 큰 손실로 작용한다. 현대차그룹은 신규 채용과 정년연장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2023년 9월 5일(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 일동

기아차지부 홍진성 지부장, 현대차지부 안현호 지부장,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오병섭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박종출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모비스지회 박영욱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비엔지스틸지회 조재승 지회장,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정광식 지회장,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 지회장,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박준용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김만용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김종복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백신일 지회장,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 홍기태 지회장,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한치정 지회장, 포항지부 현대종합특수강지회 이형도 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은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종 전반과 판매, 서비스와 같은 유관 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전국 단일 산별노동조합입니다. 2001년 2월 8일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걸쳐 19만 명의 조합원을 품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금속노조는 14개 지역지부와 6개 기업지부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속노조 및 노동 담당 기자는 메일링리스트 등록, 텔레그램 채널, kmwu.kr 금속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